

만성 콩팥 질환에서 콩팥의 길이와 용적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교 내과학교실

김정훈 · 권순호 · 조아라 · 김정현 · 이호영 · 이설희 · 현진남 · 전진석 · 노현진 · 한동철

Value of Renal Length and Volume with Diagnosis of Chronic Kidney Disease

Jung Hun Kim, Soon Hyo Kwon, Ara Jo, Jung Hyn Kim, Ho Young Lee
Sul Hee Yi, Jin Nam Hyun, Jin Seok Jeon, Hyunjin Noh, Dong Cheol Ha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oon Chun Hyang University Hospital

Background : 신장의 길이와 용적은 신장의 잔여 기능을 반영하고, 임상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기본 정보로 여겨졌다. 신장 질환이 없는 군과 사구체 여과율이 (eGFR) 이 60 ml/min/1.73m² 이하로 감소되어 있는 만성 콩팥 환자군의 신장 지표를 측정하여, 만성 콩팥병 진단의 기준값을 구하고자 하였다.

Method : 순천향 대학교 병원에서 다양한 이유로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당뇨병이 없으면서 신장 질환이 없는 군과 당뇨병성 신증이 아니면서 3개월 이상 eGFR 이 60 ml/min/1.73m² 이하로 감소되어 있는 군을 구분하여 신장의 길이와 용적의 만성 콩팥병의 구분에 대한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용자 작업특성 곡선을 추정하였다.

Results : 정상 콩팥 기능을 가진 대상군은 126명,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되어 있는 대상군은 34명 이었다. 정상 신장의 길이와 용적은 각각 10.25±0.85 cm, 165±35 mL였고, 만성 콩팥병이 있는 신장의 길이와 용적은 각각 7.3±1.76 cm, 119±38 mL로 정상 콩팥 기능 군과 차이가 있었다 (p<0.0001). 각 지표의 수용자 작업특성 곡선은 모두 대각선의 아래쪽에 존재하였다.

Conclusion : 만성 콩팥병 환자와 정상 콩팥기능을 가진 대상들과 용적과 길이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만성 콩팥병 환자의 진단에서 신장의 길이와 용적은 적절한 선별 검사 방법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y Words : 만성 콩팥병, 신장의 길이, 신장의 용적

Chronic Kidney Disease, Renal Length, Renal Volume